

알렌(H. N. Allen) 번역 「홍길동전」 연구*

유광수**

차례

1. 서론
2. 번역의 대본과 방법
3. 번역의 목표와 지향
4. 알렌의 홍길동 형상화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미국 외교관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은 1880년대 조선에서 <홍길동전> 경판30장본을 접했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1889년 『Korean Tales』이란 책에 수록했다. 그가 <홍길동전>을 번역한 이유는 조선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였는데, 번역하면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축약·삭제’, ‘부연·첨가’, ‘변용·개작’을 했고 때론 ‘의도적 논평’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성립된 알렌 영역본은 기존의 <홍길동전>에 담겨 있는 길동 탄생 장면의 폭력성이나 울도국 정벌 등과 같이 불편한 요소들을 삭제·변용시켜 긍정적이고 바른 가치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개작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2A01045531)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부교수

이는 알렌이 홍길동을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학대받는 아이의 입지전적 성공담으로 <홍길동전>을 읽어내면서 포용적 세계관을 담아냈다.

알렌의 이런 개작 수준의 번역은 1880년대 조선 사람들의 시각과는 다른 외국인으로서의 시선에서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인데, 알렌의 이런 시선은 현재 우리가 <홍길동전>과 홍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에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준다.

주제어: <홍길동전>, 알렌(H. N. Allen), 『한국설화집(Korean Tales)』, 번역본, 경판본, 포용적 세계관, 성공담

1. 서론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은 미국 선교사이자 외교관으로 대
한제국 황실의 의사 겸 황제 자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갑신정변(甲申政
變) 때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민영익(閔泳翊)을 살린 것을 계기로 고종
황제의 정치고문이 되어 1885년 광혜원(廣惠院)을 설립하는 등 조선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알렌은 조선에 지내는 동안 접하게 된 우리 소설들을 영어로 번역
하였는데, 그 중에 「홍길동전」을 번역한 「Hong Kil Tong, or The Adventures
of An Abused Boy」란 텍스트가 있다.¹⁾

1889년 알렌이 펴낸 저서 『Korean Tales』에 수록된 알렌 영역본 「홍길동
전」²⁾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동안 본격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들어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알렌본에 대한
연구는 다른 영역본 연구에 비해 소략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존 「홍길
동전」을 바라보는 연구 시각과 동일하게 ‘홍길동’을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즉,
미화된 영웅 서사로서의 「홍길동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홍길동을 영웅으로

-
- 1) 이후 알렌이 워싱턴에 있는 한국공사관 고문으로 있으면서 『Korean Tales』이란
저서를 1889년 뉴욕에서 간행했는데, 여기에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등의 영역본이 수록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구자균(1963), 「서평-
Horace N. Allen 저 「Korea: Fact and Fancy」」, <아세아연구> 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pp.229~234. 참조.
 - 2) 알렌이 번역한 영역본의 제목은 「Hong Kil Tong, or The Adventures of An
Abused Boy」이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알렌 「홍길동전」’, ‘알렌 영역본’ 혹은
‘알렌본’ 등으로 지칭하겠다.
 - 3) 알렌의 「홍길동전」 영역본에 대한 연구는 계열의 영역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대표적인 연구로, 이진숙·이상현(2016), 「『계일유고』 소재 한국고전번
역물(3)-계일의 미간행 육필 <홍길동전> 영역본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51,
열상고전연구회, pp.301~332; 이상현(2019a), 「『학대 아동(An Abused Boy)』과
『폭도』, 홍길동의 두 가지 형상과 <홍길동전> 번역의 계보」, <철학·사상·문화>
30,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pp.161~187; 이상현(2019b), 「『홍길동전』의 영
역본 연구」, <한국연구> 1, 한국연구원, pp.53~81.

규정하고 이를 민족적 가치에 입각해 비중 있게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1880년대 알렌이 파악했던 ‘홍길동’과 알렌 영역본의 의미를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웠다.

오랫동안 「홍길동전」 연구는 홍길동을 영웅적 민중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홍길동전」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이루어졌고,⁴⁾ 한동안 이를 「홍길동전」의 난제처럼 받아들이었다. 즉, 활빈당(活貧黨)을 조직해서 민중의 혁신적 가치를 고양하던 전반부의 길동이 병조판서를 제수받은 이후 그 가치를 실현하기보다는 해외로 떠나고, 해외로 진출한 후에도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울도국을 정복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등 후반부의 길동이 전반부의 모습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였다. 기실 민중을 위해 봉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을 위한 실질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지 않고, 병조판서를 제수받는 것으로 조선 왕과 타협한 후,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울도국을 정복하는 길동의 모습은 문제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적 민중적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홍길동을 영웅의 일생 구조의 전형처럼 지목하기도 했다.⁵⁾ 그러나 실제로 홍길동의 출생은 영웅의 일생 구조에

-
- 4) 대표적으로 김일렬의 문제제기로 시작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논의이다. 자세한 것은 김일렬(1972), 「洪吉童傳의 不統一性和 統一性」, <어문학> 27, 한국어문학회, pp.59~71; 김일렬(1988),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pp.89~111; 이강옥(1990), 「<홍길동전>의 제문제와 해결」, 『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pp.156~175; 조용호(1992), 「홍길동전의 주제 신고」, <서강어문> 8, pp.69~100; 엄기주(1991),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수선논집> 16,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pp.47~76; 전문수(1992), 「홍길동전의 불통일성과 통일성의 해명」, <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77~86; 이윤석(1996), 「<홍길동전> 해석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9, 열상고전연구회, pp.193~213; 윤주필(1999), 「중세 지식인의 존재 방식과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pp.5~38; 유병환(2005), 「<홍길동전>의 형성배경」,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pp.37~60; 김민혁(2016), 「『홍길동전』의 이중 서사 구조와 통일 서사 구조」, <한국언어문화> 61, 한국언어문화학회, pp.121~145. 참조.
- 5) ‘영웅의 일생’ 구조는 조동일(1971),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pp.165~214. 참조.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⁶⁾ 길동의 행위는 사회적 민중적 영웅의 모습이 아닌 개인적 입신양명과 욕망 성취 과정의 모습에 더 가깝다. 기실, 「홍길동전」의 불일치, 불통일성의 문제는 연구자를 비롯한 당대 문화지형에서 홍길동을 자신들의 시선에 일치하는 방식으로서의 영웅이란 내적 규정을 하고 바라보았기에 빚어진 문제로, 「홍길동전」에 형상화된 홍길동 본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홍길동은 불우한 자신의 처지와 부조리한 사회 구조 하에서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인물이었다.⁷⁾

그런데 홍길동을 현재 지금 입장에서 소환한 영웅으로 보기에 빚어진 문제가 알렌이 번역한 알렌본을 연구하는 시각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1880년대 조선에 거주했던 알렌이 어떻게 홍길동을 보고 이해했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후대에 만들어진 문화지형에 따라 알렌의 홍길동 이해를 재단하는 식인 셈이다.

사실 알렌 영역본의 가치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민중적 영웅성과 주인공 프레임에 갇혀 ‘홍길동’을 현재적 의미에서 소환시킨 영웅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에 있다. 알렌은 당대의 조선 민중들의 시각이 아닌, 외국인의 시선을 지니고 있기에 주관적 의미화가 아닌 객관적 의미화를 꾀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홍길동’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며, 그 점이 알렌 영역본에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알렌의 영역본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알렌의 번역 방법과 번역의 지향을 찾아보고, 그렇게 형상화된 홍길동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시각에 포착된 홍길동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민족이기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홍길동’과 ‘「홍길동전」’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6) 이에 대한 논증은 유광수(2019), 「<홍길동전>: 홍길동의 자기 존재증명과 욕망의 서사」, <철학·사상·문화> 31,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pp.438~460. 참조.

7) 자세한 논의는 유광수(2019), 앞의 논문, pp.438~460. 참조.

2. 번역의 대본과 방법

2.1. 번역의 대본

알렌이 번역의 대본으로 삼은 텍스트가 무엇인지는 그가 언급하지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번역본의 내용을 통해 경판본 계열의 텍스트임이 밝혀졌고, 그 중에서 경판30장본이 대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경판30장본이 아닌 경판24장본이 번역의 대본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⁸⁾ 하지만 알렌본은 경판30장본을 대본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판24장본이 대본이라는 주장은 “24장본의 축약이 시작되는 대목은 길동이 조선을 떠나겠다고 조선왕을 만나는 대목이다. 이 이후부터는 24장본은 30장본을 크게 축약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알렌의 <홍길동전>은 경판24장본이 경판30장본과 갈라지는 지점인 길동이 조선을 떠나는 대목부터 24장본을 전체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24장본보다 더 축약된 형태를 보인다. 그런 점에서 알렌 「홍길동전」의 번역 저본은 모리스 쿠랑이 추정한 경판30장본이라기보다는 경판24장본으로 보는 것이 당분간은 더 유효한 것 같다”⁹⁾고 한 것이다. 이는 결국 알렌본이 다른 한글본들보다 더 많이 축약되었기에 더 많이 축약된 경판24장본이 대본일 것이라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높지 않다.¹⁰⁾ 이는 알렌 영역본에 울도국 정벌 등의 뒷부분이 대폭 삭제 축약된 이유가 대본 텍스트가 축약되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논증이기 때문이다. 사실 알렌본에서 울도국을 포함한 뒷부분이 변

8) 이진숙·김채현·이상현 역주(2017), 『영웅소설 8』, 박문사, p.118.

9) 위의 책, p.118.

10) 실제로 이후 경판24장본을 대본으로 주장한 논자는 알렌본의 대본으로 경판24장본을 주장하던 입장에서 대강의 경판본 계열일 것이라는 유보적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경판30장본의 특정 부분이 알렌 영역본에 누락되었다는 식의 화소적 비교를 하는 것(이상현(2019a), 앞의 논문, pp.161~187.)으로 보아 경판30장본을 대본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된 이유는 알렌이 의도적으로 축약했기 때문이다.¹¹⁾

아울러, 경판24장본을 대본이라 주장하는 논자들은 알렌이 울도국 화소와 작품 후반부를 변개한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인의 삶과 생활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울도국 정벌의 군담 내용이 삭제된 이유로 알렌의 또 다른 번역인 「백학선전」처럼 “군담적 요소를 제거한 일종의 애정소설로 변모”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¹²⁾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알렌이 뒷부분을 축약한 이유는 ‘군담의 번다함’으로 인해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흥미를 느낄 수 없기에 삭제하기도 했지만, 울도국 정벌의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에 알렌이 의도적으로 삭제·개작한 것이다.¹³⁾

기실, 그동안 알렌이 경판30장본을 대본으로 번역했을 것이란 입장은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에서의 언급을 통해 추론한 것이다. 꾸랑이 『한국서지』에서 언급한 「홍길동전」은 야동(冶洞)에서 간행한 경판30장본인데,¹⁴⁾ 그 설명 말미에 “Cf. Dr. Allen, *Korean Tales*, p.170, Hong Kiltong.”¹⁵⁾라고 부기하여 알렌 번역 영역본과 경판30장본의 친연성을 지적했다.

물론, 꾸랑은 경판30장본 「홍길동전」을 보고 서술한 것은 분명하지만, 알렌은 경판30장본이 아닌 경판24장본을 보고 번역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판본이 후대로 가면서 장수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만들어졌기에, 경판30장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을 줄여 경판24장본이 출현한 것은 분명한

11) 이에 대해서는 경판24장본을 대본으로 주장하는 논자들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도 하기에 문제적인데, 왜냐하면 경판30장본보다 뒷부분이 축약되었기에 번역 대본이 경판24장본이라 추정하면서도 알렌이 대본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뒷부분을 축약했다는 것이니, 논리적 상충이 되기 때문이다.

12) 이진숙·이상현(2016), 앞의 논문, p.323. 참조.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3.1과 3.2에서 상론한다.

14) 「홍길동전」의 장수가 30장이라는 점과 “冶洞에서 新刊”이란 언급을 통해, 꾸랑이 본 「홍길동전」이 경판30장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모리스 꾸랑, 이희재 역(1994), 『한국서지』, 일조각, p.292. 참조.

15) 모리스 꾸랑, 이희재 역(1994), 앞의 책, p.292.

사실이다. 그러므로 꾸랑이 경판30장본을 보았다면, 꾸랑보다 앞선 시기에 「홍길동전」을 보고 영역한 알렌은 시기상 경판24장본보다는 경판30장본을 보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출판 연대로 살펴보아도 그렇다. 알렌 영역본이 실린 『Korean Tales』가 출판된 것은 1889년이고, 꾸랑이 『한국서지』의 머리말을 쓴 것이 1894년이므로,¹⁶⁾ 꾸랑이 경판30장본을 보았다면 그보다 앞선 시기의 알렌 역시 경판30장본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알렌이 번역의 대본으로 삼았을 「홍길동전」은 경판30장본이라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¹⁷⁾

2.2. 번역의 방법

번역은 크게 직역(直譯)과 의역(意譯)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구와 묘사 등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떠나 원문 그대로 옮기려는 직역은 번역할 원문의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즉, 한 단어, 한 구절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전(經典)의 경우에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시도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역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¹⁸⁾

영어로 번역을 한 알렌의 경우, 원문이 소설이라는 점과 원문 소설의 자구에 깊은 철학적 성찰이 담긴 내용이 아니란 점이 번역의 방식을 결정했다. 즉, 「홍길동전」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소설이겠으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자

16) 모리스 꾸랑, 이희재 역(1994), 앞의 책, pp.xi~xii. 참조.

17) 본고에서 알렌이 번역의 대본으로 삼은 「홍길동전」을 지칭할 때는 ‘원작’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홍길동전」 작품군 전체의 원작이란 의미가 아니라, 알렌이 보았던 대본으로서의 원작이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18) 직역과 의역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번역의 대상의 비중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번역어를 사용하는 言衆의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도 선호도가 달라진다. 영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자연스런 당대 언어로 번역하는 방법, 즉 의역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세한 것은 이희재(2009), 『번역의 탄생』, 교양인, pp.15~34. 참조.

구에 집착할 정도로 중요한 텍스트라 할 수는 없다.¹⁹⁾ 담고 있는 내용과 스토리 측면에서 의미 있을 뿐이지 문학적 서술과 묘사로서 가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알렌과 같은 수준의 한국어 이해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 문학성을 음미하고 향유하기란 쉽지 않다.²⁰⁾ 그러므로, 알렌은 「홍길동전」의 내용과 스토리를 따라 유연하게 번역하는 것을 택했다.²¹⁾

의역을 하게 된 알렌은 자연스레 자신의 번역 목적에 따라 ‘축약 · 삭제’하거나, 의도적 ‘변용 · 개작’을 했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부연 · 첨가’를 했다.

알렌본이 원작 「홍길동전」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울도국 정벌 대목과 지하 대적인 요괴 울동을 퇴치하는 대목인데, 알렌은 울도국 정벌 대목은 전체를 삭제하였고 요괴 퇴치 대목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개작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꾼 이유는 알렌의 번역 의도가 담긴 중요한 이유 때문이지 알렌의 내용에 대한 몰이해나 번역 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아니다.²²⁾

축약 · 삭제는 울도국 정벌 대목을 삭제한 것 외에도, 도술을 부리는 장면에서도 축약하거나 삭제하였다. 자객을 죽이는 장면이나 허수아비로 가짜 홍길동을 만드는 화소처럼 서사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도 가급적 신이성을 줄이려 노력했

-
- 19) 물론 이는 번역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제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이 번역한 영역본 「홍길동전」은 직역을 하려는 생각으로 문자 그대로 옮기려 노력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진숙 · 이상현(2016), 앞의 논문, pp.301~332. 참조.
- 20) 물론 알렌이 한국어로 지어진 문학작품을 당대 민중들과 같은 수준에서 향유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학은 일상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수준을 넘는 언어 능력을 요구하고,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십수 년 정도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알렌은 문학적 향유보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런 소개, 전달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3.1에서 설명하겠다.
- 21) 알렌은 이렇게 조선を紹介함으로써 조선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상현(2019b), 앞의 논문, pp.53~81. 참조.
- 22) 자세한 것은 다음의 3.1에서 상론한다.

고, 그 외에도 불필요하다 싶은 신이한 도술 부리는 장면을 삭제했다. 이는 홍길동을 신성한 영웅이란 측면보다는 인간적 영웅의 모습으로 구현하려는 의도 때문이다.²³⁾

축약·삭제와 맞물려 자연스레 의도적 변용·개작도 했는데, <지하대적퇴치설화> 화소가 있는 요괴 퇴치담이 변용된 것 외에도, 흥 판서의 정실 아들이 1명인데 2명으로 설정한 것, 자객 특재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것, 홍길동을 잡으러 내려왔던 포도대장이 자살하는 것, 인명과 지명 같은 고유명사를 일반명사 수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등 많은 부분에서 기존 「홍길동전」 내용과 다르게 고쳤다.²⁴⁾

알렌이 번역하면서 부연·첨가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서사를 작가 의도에 따라 바꾸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홍길동전」 서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All sat down before the tables, which were filled so high that one could hardly see his neighbor on the opposite side. (모두가 탁자 앞에 앉았는데, 맞은편의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음식이 높이 차려졌다. 136~138)²⁵⁾

홍길동이 도적들과 한패가 되어 절을 약탈하기 위해 귀족 자제로 꾸며서 절에

-
- 23) 알렌은 ‘홍길동’을 학대받는 아이로 태어났으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입지전적 인물로 바라보았고, 「홍길동전」을 개인의 주체적 선택을 통한 입지전적 성공담으로 읽었다. 그렇기에 가급적 신이성을 줄여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내려 노력했다. 그래서 알렌본에서는 원작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신이성이 제거되었다.
- 24) 축약·삭제, 변용·개작의 이유 등의 구체적인 서술 양상은 그렇게 번역한 알렌의 의도에 결부된 중요한 사안으로, 형상화의 의도를 설명하는 다음 절에서 상론한다.
- 25) 알렌 영역본 원문과 번역은 이진숙·김채현·이상현 역주(2017), 앞의 책, pp.118~164.에 수록된 것을 사용하며, 인용문의 괄호 안에 해당 쪽수를 적어 표시한다.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가서 잔치를 벌이는 대목인데²⁶⁾ 산더미처럼 음식을 차려놓아서 맛은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는 언급은 원작에는 없지만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한 것이다.

이렇게 서사 이해를 위해 부연하는 대목도 있지만, 아예 원작에는 없는 서술자로 서사에 개입해 ‘의도적 논평’을 하기도 했다.

① The Latter son was very remarkable from his birth to his death, and he it is who forms the subject of this history. (이 이야기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매우 특출했던 바로 그의 인생을 다룬다. 120~121)

② The neither cold nor warm, while it lacked nothing of the bracing character of a Korean autumn.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서도 한국 가을의 특징인 상쾌함이 잘 드러나는 날씨였다. 151~152)

③ As was the rule, this temple in the mountains was well patronized by officials, who made it a place of retirement for pleasure and debauch, and in return the lazy, licentious priests were allowed to collect tribute from the poor people about, till they had become rich and powerful. (흔히 그러하듯, 관리들이 산 속의 이 절의 뒤를 봐 주고 대신 이곳을 그들의 은밀한 쾌락과 방탕의 장소로 삼았다. 게으르고 음탕한 사제들은 그 대가로 근처의 가난한 사람들로 부터 공물을 거둘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재물을 쌓고 강력해졌다. 135~136)

이 세 논평 모두 원작에는 없는 내용으로 외국 독자들에게는 필요한 설명이다. 조선 사람들은 ‘홍길동전’이란 제명을 통해서,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나 외국인들에게는 알렌이 지은 “Hong Kil Tong, or The Adventures of An Abused Boy”라는 제명만으로는 명확치 않은 것을 소설의 핵심과 진행을 위해 ①처럼 서두에 논평을 해서 소설 전체의 이해를 도운 것이다.

26) 원작의 해인사 습격 대목인데, 알렌본에서는 고유명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기에 ‘해인사’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②는 조선 독자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기에 불필요한 군더더기지만, 서양인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다. 즉, 외국인에게 조선의 계절을 이해시키기 위한 논평이다.

③은 서사 내적으로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부연한 논평이다. 원작에 해인사 습격 대목을 서술하기에 앞서, 알렌은 절을 습격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 즉, 서양에서도 ‘흔히 그렇듯이’ 종교 사제들과 결탁한 정치권력의 폐해를 언급함으로써 이해를 도우면서, 나아가 홍길동 행위에 정당성을 주고자 한 것이다.

정리하면, 알렌은 「홍길동전」을 번역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문학성보다는 담고 있는 내용이라 판단해서 직역이 아닌 의역을 택했고, 따라서 원작 내용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축약·삭제’, ‘부연·첨가’, ‘변용·개작’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의도적 논평’을 가하기도 했다. 이는 알렌이 의도한 바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방법이었다.

3. 번역의 목표와 방향

3.1. 서양에 소개

알렌이 「홍길동전」을 번역한 의도를 직접 언급한 것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번역된 작품의 내용과 의도적 논평 등의 서술을 통해 추정할 수는 있다. 앞서 보았듯이 알렌은 조선 소설 「홍길동전」을 외국에 소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²⁷⁾

27) 이런 의도는 알렌이 「심청전」이나 「백학선전」을 번역한 방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알렌은 「심청전」, 「백학선전」을 통해 문학작품을 번역한다는 의식보다는 조선인의 삶과 생활을 보여주는 설화로 인식하고 번역했는데, 이는 알렌의 고소설 번역이 외국에 조선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앞선 목적임을 알게 한다. 알렌의

조선의 가을 날씨를 설명한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알렌은 조선의 번다한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가급적 피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외국 소설을 읽을 때, 특히 해당 나라 언어에 익숙지 않은 경우에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해당 언어의 고유명사이다.²⁸⁾ 알렌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명사를 피했다.

그래서 ‘홍길동’과 ‘홍 판서’는 있는 그대로 번역했지만, 길동의 형 ‘인형’이나 ‘곡산모 초란’, 자객 ‘특재’ 등의 고유명사는 삭제했다. ‘해인사’ 역시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앞서 보았듯이 정치세력과 결탁한 문제적 절(temple)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의 경우도 문화가 달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풀어서 설명했다. 이를테면, 포도대장의 준말인 ‘포장’을 음차해서 “Pochang”으로 번역하면서 그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당 캐릭터를 형상화했다.²⁹⁾ ‘불목하니’도 “불을 살피고 있던 늙은 사제(An old priest who was attending to the fires. 139)”로 풀어 형상화했다. 이런 방법으로 서사 내용과 진행에 더 쉽게 몰입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였다.

「심청전」, 「백학선전」 번역에 대해서는 이상현(2011), 「문혀진 <심청전> 정전화의 계보 -알렌(H. N. Allen), 호소이(細井肇), 게일(J. S. Gale) <심청전> 번역본의 연대기」,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pp.405~456; 이상현(2012), 「알렌 <백학선전>영역본 연구 -모리스 쿠랑의 고소설 비평을 통해 본 알렌 고소설영역본의 의미」, <비교한국학> 20-1, 국제비교한국학회, pp.289~335. 참조.

28) 해당 문화권에서는 익숙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무척이나 난감한 것이 사람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들이다. 발음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비슷해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를 테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인들이 대부분 ‘김’, ‘이’, ‘박’ 등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쉽지 않다. 거꾸로 영미권 이름의 경우는 중간 이름(middle name)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William을 애칭으로 Bill로 부르는 등 약칭을 많이 사용하기에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동일인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를 잘 인지한 알렌은 중요치 않은 고유명사는 과감하게 삭제해 버려서 서사를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했다.

29) The officer was called the Pochang; he had charge of the prisons. (142)

원작에서는 해인사 습격 이후 ‘활빈당’ 명칭을 사용하는데, 주지하듯이 ‘활빈당(活貧黨)’이란 명칭은 「홍길동전」에선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 이름이지만, 알렌은 이 역시 사용하지 않는다. 지방 감사(Governor)를 습격한 후 붙인 격문에 “the people's avenger(141)”라고 언급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용어로 번역했다.³⁰⁾

이런 번역은 알렌이 조선 정치나 사회 상황에 대한 몰이해 때문은 아니다. 그가 조선 상황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음은 번역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처첩관계와 서열차별 등에 대해 분명히 알고 번역했으며, 기실 알렌은 곡산 모 초란이 ‘기생’이었음도³¹⁾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초란을 “dancing girl”이라고 분명하게 서술했던 것이다.³²⁾

이렇게 알렌은 「홍길동전」을 서양에 소개하기 위해 번역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는데, 독자들이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개작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괴물 울동에게 잡혀간 백 씨의 딸을 구출하는 대목이다. 일단 괴물 요괴 대신 현실적으로 타당한 적대세력인 “산에 사는 야만인 무리(a band of savage people who lived in the mountain. 155)”로 변용하고는, 이에 따라 잡혀간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One old fellow, who seemed to be chief, was tormenting a young lady by tying to tear away her veil and expose her to the gaze of the barbarians assembled. (대장인 듯 보이는 한 나이 많은 자가 젊은 숙녀의 베일을 찢어 모여 있는 야만인들에게 그녀의 얼굴을 드러내려 하며 괴롭히고 있었다. 156~157)

30) 해당 장면의 “the people's avenger”는 원작에서 “활빈당 당수 홍길동”이라 한 것을 변용한 것이다.

31) 원니 곡산모는 본디 곡산 기생으로 상공의 총첩이 되어서니 일흠은 초난이라. (경판30장:3쪽)

32) The wife of Hong Pansa and his other concubine (the dancing girl), seeing (124)

베일(veil)은 조선의 것이 아니다. 조선 양반 여성의 경우 외간 남자와 내외하여 만나지 않았고 혹시 외출하게 되면 가마를 타거나 장옷을 입어 얼굴을 가리는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서양의 베일처럼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는 않았다. 알렌은 상대적으로 서양 사람들에게 익숙한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아랍권역의 이슬람 문화³³⁾를 통해 야만인들에게 납치된 여성들의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위에 인용한 장면에서 베일을 찢어 얼굴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단순한 수치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성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이 쉽게 상황을 이해하도록 했다. 그래서 독자들은 야만인들에게 잡힌 여성들이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자신들이 이해하는 문화적 방식으로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후 홍길동이 납치한 야만인들을 해치우고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길동이 갇힌 여성들이 야만인들과 한 패인 줄로 알고 죽이려 하자, 한 여성이 베일을 벗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한다.³⁴⁾ 이 여성은 자신이 야만인들과 같은 패거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베일을 벗고 말하는데, 이로 인해 이 여인은 길동과 결연하게 된다. 즉, 여성은 다급함에 베일을 벗었지만 그렇게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인 행동이³⁵⁾ 되돌이킬 수 없는 행위임을 자각하게 되고,³⁶⁾ 아울러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아름다움에 끌려 고마움과 사랑

33) 소위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문화와 서양의 교류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서양에 있어 동양은 쉽게 이슬람 문화권의 지역으로 이해되었다. 서양에는 없는 이국적인 문화풍습으로서 베일은 익히 알려진 사항이다. 이슬람과 문화교류, 베일 등에 대해서는 카렌 암스트롱, 장병옥 옮김(2003), 『이슬람』, 을유문화사, pp.103~161; 주경철(2008), 『대항해시대』, 서울대출판부, pp.6~44; 오은경(2006), 「베일로 재현된 무슬림들의 욕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6-2, 한국이슬람학회, pp.233~250. 참조.

34) when one of them threw aside her veil and implored for mercy (159)

35) Remembering herself however, she quickly veiled her face, but the mischief had been done; each had seen the other. (160)

36) 베일을 쓰는 것과 벗는 것, 벗겨짐 등에는 성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런 베일이 지닌 기능과 외간 남자와의 접촉 문제 등을 둘러싼 베일 담론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해방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 감정이 생긴다. 한편 길동은 베일을 벗은 여성이 전날 길동 자신이 구해주려 했던 여성임을 알게 되어 마음이 열리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그녀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알렌은 베일을 벗음으로써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궁극적으로 둘이 맺어지게 되는 것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는 원작 「홍길동전」과는 전혀 다른 변용이다.

원작에서 울동에게 납치된 딸을 구해오면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겠다는 것에 따라 구출한 여성과 맺어지는 것은 유교적인 가부장제 하에서는 쉽게 이해되는 상황이지만, 당대 서양에서는 이해되기보다는 폭력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여성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주체적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결정에 따른 결연이기에 문제적이고, 남성 측면에서 보아도 사랑보다는 문제 해결을 통한 지위 획득의 측면이기에, 진정한 선택에 의한 결연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알렌은 길동과 구출된 여성과의 결연을 위와 같이 서로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상호 주체적 선택의 측면이 강화되도록 개작한 것이다. 알렌본에서도 여성의 아버지가 딸을 구출해 달라는 포고문을 내걸지만,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큰 보상을 내리겠다(offering a large reward. 155)’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연보다는 재물 등의 보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또한 길동이 포고문을 보았으나, 원작과 달리, 의도적으로 구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베일이 벗겨질지도 모를 다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보고 의분(義憤)에 차서 야만인들을 제압한 것이고, 이후 구출된 여성의 사정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런 포고문을 읽은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³⁷⁾ 즉, 길동에게 여성

서는 오은경(2007), 「이슬람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국제지역연구> 11-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p.123~142; 기계형(2008), 「중앙아시아 무슬림 여성의 베일(Veil)에 관한 담론」, <e-Eurasia> 9,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pp.39~41; 염운옥(2010), 「영국의 무슬림 “베일(Veil)” 논쟁」, <대구사학> 101, 대구사학회, pp.265~292; 한하은(2015), 「여성문제로 본 터키와 이집트의 정치 이슬람: 베일 문제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34-1,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pp.81~116. 참조.

37) The proclamation had made but little impression upon Kil Tong, and it was

구출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목적성이 없었음을 부각해서 그려낸 것이다. 길동이 섬의 우두머리가 된 것도 단지 구출해낸 여성이 그 섬의 지배자의 딸이었다는 것 때문으로, 그 아버지가 길동의 놀라운 구출에 감격해 자신의 딸과 정혼시키고 자신의 지위를 물려줌으로써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길동과 여성의 결연이 상호적임에 따라, 원작에는 없던 여성의 내면이 형성되었고 그 내면에서 움직인 주체적 선택을 통한 결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길동은 오직 이 여성과만 결연하는데, 이는 원작과 다른 지점으로, 상호 주체적인 선택에 따른 결연의 필연적 결과를 말함과 동시에, 적서차별의 문제를 겪은 길동이 후일 첩을 두는 원작 「홍길동전」의 부당함을 제거하는³⁸⁾ 일석이조의 형상화를 꾀한 것이다.

이렇게 알렌 번역의 이유와 목적은 「홍길동전」의 소개였고, 그 목적을 위해 서양 독자들의 문화적 상황과 이해 정도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어휘 등은 물론이고 내용까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용·개작하였다.

3.2. 바른 가치 지향

알렌은 서양에 「홍길동전」을 소개하려는 의도와 함께 작품 내용의 부당한 부분을 배제하거나 변용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면서 내용이 바른 가치 지향을 지니도록 의도적으로 개작했다.

① 「홍길동전」에는 당대 양반들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나 외국인 입장

not till the lady had told her story that he remembered reading them. (160)

38) 이는 다음 항에서 논하는 ‘바른 가치 지향’의 측면이기도 하다. 즉,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울분에서 시작한 서사가 결국 마지막에 자신이 첩을 두는 행위로 끝나는 것은 아무리 길동을 미화한다 해도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렌은 원작과 달리 길동이 다른 여인들을 첩으로 두지 않고, 오직 구출한 그 여성과만 결연하는 것으로 개작한 것이다.

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있는데, 무엇보다 홍길동 탄생 경위가 그렇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알렌은 이를 삭제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늘이 내린 운명적 아이라는 점이 핵심임을 모르지 않는 알렌은 홍길동 탄생 내용을 서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신 문제가 되는 폭력성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개연적 상황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대 귀족 양반의 바른 가치 지향을 보이려 했다.

원작에서 홍길동 탄생은 홍 판서가 낮잠을 자다가 용꿈을 꾸게 되는데, 길몽(吉夢)임을 직감한 홍 판서가 안방에 들어가 정실부인과 성관계를 맺으려 하나, 잘 되지 않자 사랑방에서 울적한 마음에 잠겼을 때 마침 차를 가져온 시비(侍婢) 춘섬을 친압(親狎)함으로써 길동을 임신하게 한다. 이 장면이 문제적인 것은 홍 판서가 여종을 친압했다는 폭력성만이 아니라 꿈을 핑계 댈 허위와 욕망이 문제였기 때문이다.³⁹⁾ 알렌은 홍길동 탄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작했다.

When Hong Pansa was the father of but two sons, he dreamed by night on one occasion ... (중략) ... He hoped the blessing might prove to be another son, and went to impart the good news to his wife. She would not see him, however, as she was offended by his taking a concubine from the class of "dancing girl". The great man was sad, and went away. Within the year, however, a son of marvellous beauty was born to one concubine, much to the annoyance of his wife and to himself. (홍 판서에게 두 아들만 있었을 때, 그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 그 축복의 아들을 한 명 더 낳는 것으로 밝혀지길 희망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아내에게 갔다. 그러나 아내는 그가 '무희' 계급의 첩을 들인 것에 마음이 상해서 그를 보려 하지 않았다. 대인은 슬퍼하며 물러났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나지 않아, 한 첩에게서 출중한 용모의 아들이 태어나 그의 아내와 그를 아주 골치 아프게 했다, 121~123)

39) 이에 대해서는 유광수(2019), 앞의 논문, pp.438~460. 참조.

우선 춘심을 친압하는 장면을 삭제했다. 그리고 낮잠이 아닌 밤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고 바꾸었다. 기실 양반 남성이 사랑방에서 낮에 잠시 조는 것은 부도덕한 것은 아니지만, 낮에 용꿈을 꾸었다고 그 즉시 성관계를 해야만 훌륭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흥 판서가 성욕에 취한 행동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내용이다.⁴⁰⁾ 그런데 알렌은 낮을 밤으로 개작함으로써 사랑방에서 잠을 자던 흥 판서가 안방으로 공간을 옮겨가는 행동의 개연성과 도덕적 타당성을 높였다. 밤잠을 자다가 용꿈을 꾸었으니 자연스레 성관계를 갖고자 했다는 식이 된 것이다. 이는 흥 판서가 욕정에 취해 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해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실부인에게서 위대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서사의 중요한 맥락 상 길동은 첩에게서 태어나야 했기에, 흥 판서가 정실부인과 관계하지 못한 이유를 다시 설정해야 했다. 그래서 알렌은 부인의 마음이 상해 있었다고 설정한다. 즉, 곡산 기생 초란[dancing girl]을 첩으로 들인 것에 마음이 상해 냉랭한 상황이었던 부인이 동침을 거부함으로써, 그녀와 남편 모두에게 골칫거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개연적 상황으로 개작해낸 것이다. 이는 충분히 서양적 관점에서도 이해 가능한 인간 본연의 감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용으로 인해 흥 판서의 도덕성이 훼손되지 않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정황상 운명적 아이가 서자로 태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설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알렌은 원작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작했는데, 그 지향은 그가 바르다고 생각한 방향이었다.

② 바른 가치 지향을 추구하는 것은 율도국 정벌을 삭제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원작에서 길동이 병조판서가 된 후 조선을 떠나서 병력을 길러 태평성대를

40) 즉, 낮에 꿈을 꾸었어도 밤까지 기다렸다 정실부인과 동침하면 되는 것인데, 원작에서 흥 판서는 굳이 낮에 성관계를 요구했고 당연히 부인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유광수(2019), 앞의 논문, pp.438-460. 참조.

구가하는 울도국을 정복한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울도왕이 됨으로써 자신이 목격한 자기 욕망의 극한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알렌은 이런 정벌, 정복을 위한 의도성을 삭제한다. 이는 길동의 행동이 평화로운 국가를 침략하는 야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알렌은 앞서 살펴본 대로 도적들에게 잡혀간 여성을 구출한 후 그 지역에 정착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에 오르는 것으로 바꾸었다.

The father's delight knew no bounds. He was a subject of Korea's King, yet he possessed this island and ruled its people in his own right. And calling his subjects, he explained to them publicly the wonderful works of the stranger, to whom he betrothed his daughter, and to whom he gave his official position. The people indulged in all manner of gay festivities in honor of the return of the lost daughter of their chief; in respect to the bravery of Kil Tong; and to celebrate his advent as their ruler. 그녀(*잡혀간 여성-인용자)의 아버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그는 한국의 왕의 신하이지만 이 섬을 소유하고 그의 방식대로 이곳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이 이방인(*홍길동-인용자)의 경이로운 일을 설명한 후 길동과 그의 딸과 정혼시키고 그에게 자기의 공식적인 지위를 물려주었다. 백성들은 길동의 용감함으로 수장의 잃어버린 딸이 돌아온 것을 기념하고 그가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한 것을 경축하는 온갖 종류의 흥겨운 잔치를 즐겼다. (160~161)

이를 통해 「홍길동전」이 지니고 있던 울도국 정벌의 부당성이 사라지고 정복자로서의 문제점 역시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조선왕의 통제를 받는 한 섬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다. 이는 조선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원작과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울도국을 정복하려는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실, 알렌본의 홍길동이 조선 왕에게 요구한 것도 군사를 다루는 ‘병조판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판서 직을 요구했다. 그것은 노비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벗어나게만 해달라는 의도였다.⁴¹⁾ 자신이 종의 자식이지만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으로 군사적 물리적 행동을 뜻하는 원작의 병조판서와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그에게 내려진 것도 원작처럼 ‘병조판서’가 아닌 ‘그가 원하던 관직’이라는 식으로 서술하였다. 그렇게 조선 왕은 그의 출생에 붙은 낙인을 제거해 준 것이고⁴²⁾ 길동은 이를 받아들인다. 그의 목적이 원작과 달리 병조판서와 같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협적인 방법으로 군사와 관련 없는 식의 서술은 결국 길동이 한 섬으로 그를 따르는 ‘소수의 추종자(his few followers)’들과 함께 이주하여 살려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원작의 길동이 욕망 성취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로 나간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즉, 알렌본의 길동은 이미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명예를 얻었기에 만족하고 자신이 살 곳으로 이주했을 뿐인 것이다.

그가 여인을 구출한 것도 앞서 보았듯이 우연히 옆 섬으로 여행을 갔기 때문이다. 그 여행도 정탐이나 첩보 목적이 아닌 단순한 사냥에 필요한 독을 획득하기 위함이었다(154~155). 그곳에서 우연히 산에 사는 야만인들이 여인을 납치해 갔으니 구해달라는 포고문을 보았으나, 심상히 넘겼고, 원래 여행의 목적인 사냥용 독을 채취하기 위해 험산준령에 들어가다가 여인을 희롱하는 못된 무리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구출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 섬을 다스리게 되는 것으로 서사를 종결한다.

이렇게 알렌은 홍길동의 정복자로서의 모습을 삭제하고 안온한 삶을 추구하는 의협심이 넘치는 인물로 형상화 한다. 이런 형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바른

41) “If, the government would confer upon Kil Tong the rank of Pansa, as held by his father, and thus remove from him the stigma attaching to him as the son of slave, he would stop his depredations. (정부가 길동에게 아버지와 같은 판서직을 수여하여 노비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제거해 주면 약탈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50~151)

42) 이렇게 신분을 면천시켜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고는 서양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이었다. 평민이 공을 세워 귀족이 되는 예는 자신들의 문화지형에서도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 지향을 꺾은 것이다.

③ 이런 바른 가치 지향의 모습은 길동이 원작에서 자객 특재를 죽이는 것과 달리 자객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바른 가치 지향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객이 사건의 원흉이 아니기에 살인은 공연한 화풀이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동은 자객들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자, 앞으로 다시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⁴³⁾ 살려준다. 불필요한 살인을 배제한 것이다.

반대로 원작에서는 죽지 않는 포도대장이 알렌본에서는 자살하는 것으로 개작했는데, 이 역시 바른 가치 지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길동을 잡으러 내려왔던 포도대장이 길동에게 속임을 당해 술을 마신 후 자루에 넣어져 한양 부근에 버려진다. 원작에서는 포도대장 등이 깨어난 후, 부하들에게 “이 일이 가장 허무맹랑하니 남의게 전설치 말나. 그러나 길동의 지죄 불측하니 엇지 인척으로써 줍으리오. 우리 등이 〃 제 그져 드러가면 필경 죄를 면치 못하리니 아직 슈 월을 기다려 드러가즈(경판30장:13쪽)”라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태업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왕을 속이는 부패한 모습과 해이한 기강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만만하게 길동을 잡아 오겠다고 자원했던 포도대장의 관료주의적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알렌은 약에서 깨어난 포도대장이 자신이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왕 앞에 할 수 없어 스스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투신자살하는 것(147~148)으로 개작한다. 이를 통해 포도대장의 비장미와 비극성이 고조되고, 동시에 자살했다는 것을 모르는 조정에서는 길동이 포도대장을 죽인 줄로 알고 “대궐 앞까지 시신을 가지고 오는 살인자의 대담함에 놀라게(146~147)” 되어 홍길동 문제가 심각해지는 개연성까지 강화된다.

이렇게 알렌은 「홍길동전」을 번역하면서 원작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당대 자

43) On condition that they should never try to kill another man. (129~130)

신이 보기에 타당하고 바른 가치로 지향점을 바꿔 번역했다. 그 과정에서 홍 판서의 낮잡과 여중 친압, 길동의 울도국 정벌과 첩을 얻음 등을 삭제하고, 자객을 용서하거나 기회주의적인 포도대장의 행태를 바르게 고치는 등의 일련의 개작을 수행한 것이다.

4. 알렌의 홍길동 형상화 의미

4.1. 개인의 성공담

알렌은 「홍길동전」을 번역하여 제목으로 “Hong Kil Tong, or The Adventures of An Abused Boy”라고 했지만, 기실 제목은 ‘「Hong Kil Tong」’이고 이에 대한 그의 해석적 부제가 ‘The Adventures of An Abused Boy’이다.⁴⁴⁾ 알렌이 본 홍길동은 ‘학대 받는 아이’였고 그런 아이가 모험을 하는 이야기가 「홍길동전」이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알렌은 「홍길동전」을 홍길동의 모험담, 성공담으로 읽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홍길동 개인에 주목했다. 원작처럼 조선시대 사회적으로 문제적인 적서차별의 층위로 읽어내지 않고, 개인적인 층위에 집중했다. 그래서 홍 판서의 아들들이 여러 명인 것으로 설정하고, 그 아들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서술하고, 길동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운운하는 공부를 거부하는 등(120~123) 원작과 다른 서술로 그려냈다. 또한 관상쟁이의 모함 이후 길동을 독방에 감금하는 내용(125~126) 역시 원작에는 없는 새로운 화소로 서자이기에 받는 사회적 차별이 아닌 길동 개인에게 가해지는 학대의 문제로 형상화한 것이

44) 알렌이 번역한 「홍부전」, 「춘향전」, 「심청전」도 역시 각기 고유명사 그대로를 제명으로 쓰면서 부제로 각기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조선 소설을 서양에 소개하겠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각 소설의 번역 제명은 구자균(1963), 앞의 논문, p.2. 참조.

다. 그럼으로써 길동이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자각을 통해 자신에게 가해진 억압적 상황과 질곡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런 개인적인 수준의 성공담이기에, 원작과 달리 활빈당을 만든 후 백성을 구제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작에서 적서차별로 고통을 받은 길동이 적서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나 훗날 첩을 두는 구태의연한 행동으로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알렌본의 길동은 적서차별로 고통 받는 것보다 개인을 둘러싼 학대나 다름없는 행동들이 강조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펼쳐짐으로써 적서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길동이 주목하지 않아도 부자연스럽게 여겨지지 않는다. 즉, 알렌본 길동에게 가해진 폭력은 서자이기에 받는 수모와 설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폭력의 상황에 치우쳐 있다. 이는 애초에 알렌이 형상화한 방향이 길동의 개인적 문제에 집중한 길동의 성공담으로 그려냈기 때문이다. 즉, 알렌본의 길동은 국가적, 사회적 수준의 영웅을 피하지 않았기에 자신만이 아닌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서자들의 처지나 억압받는 민중들을 구제하고 살길을 도모하는 활빈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거슬리지 않게 느껴지도록 형상화하였다. 알렌본의 길동은 민중의 영웅이 아닌 것이 그가 민중의 영웅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학대받는 상황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한 개인적 인물인 것이다. 만약 길동이 영웅이라면 개인에게 가해진 학대와 질곡을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나려 했고 또 그렇게 벗어났기에 영웅적인 것이지, 사회 국가를 위한 문제 해결을 피했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알렌은 「홍길동전」 원작을 번역하면서, 자신이 바라본 ‘홍길동’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홍길동을 형상화했다. 그가 그린 홍길동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의 영웅 홍길동’이나 ‘빈민을 구제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입지전적 성공을 성취해낸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알렌이 형상화한 홍길동은 개인적 차원의 성공을 추구하는 개연적인 인물이 되었고, 「홍길동전」은 개인의 성공담으로 형상화 되었다.

4.2. 포용적 세계관

어려서 학대받은 인물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행동이 쉽게 일탈이 되기도 하고,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즉, 원작처럼 길동이 울도국을 정벌해서 왕이 되는 것이 개인적 성공담으로도 충분히 여겨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알렌은 그렇게 홍길동을 형상화하지 않았다.

알렌이 형상화해 낸 홍길동은 울도국을 쳐들어가는 정복자도 아니며, 높은 지위를 탐하는 욕망의 화신도 아니다. 그는 결국 조선 왕의 치하에서 다스리는 섬의 우두머리가 되고, 한 명의 여인과 살아감으로써 행복해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길동을 형상화함으로써 알렌은 궁극적으로 포용적 세계관을 그려낸다.

알렌은 울분에 찬 학대 받던 아이가 노력을 통해 성취한 궁극적 모습이 당대 사회와 크게 괴리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길동의 학대와 극복을 통한 성공담이 개인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었던 것처럼, 길동의 성공 방향 역시 국가 사회와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알렌은 판단했다. 즉, 홍 판서 집안에서 불의한 인물을 다른 첩의 시기와 질투로 빚어진 일이지 그것이 당대 사회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울도국을 정벌하는 정복자나 조선 왕과는 별개의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이 당대 사회 질서와 충돌하기에, 이를 포용적으로 개작했다. 그래서 울도국 정벌을 삭제하고 길동이 조선 왕 치하의 섬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한다.

이런 알렌의 홍길동 형상화는 개인적이고 주체적이라는 점에서 서양적 가치를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홍길동전」이 지니고 있던 길동의 성취욕과 정복욕을 순치시켜 「홍길동전」에 드러나 있던 전반부와 후반부의 불일치성을 해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알렌이 형상화한 홍길동은 개인적으로 불우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이를 이겨내고 극복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겨움까지 포용하고 감싸는 포용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해냈다. 이는 알렌이 바라본 홍길동이자 알렌

이 생각한 당대 우리 민족의 나아가야 할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알렌은 그렇게 홍길동과 「홍길동전」을 외국에 소개했다는 점이다.

5. 결론

알렌은 1880년대 조선에서 널리 유통되던 「홍길동전」을 접했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다른 번역 소설들과 함께 1889년 『Korean Tales』으로 출간했다. 그가 「홍길동전」을 번역한 이유는 조선을 외국에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목적은 조선 소설의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에 「홍길동전」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축약·삭제’, ‘부연·첨가’, ‘변용·개작’을 했고 때로는 ‘의도적 논평’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알렌 영역본 「Hong Kil Tong, or The Adventures of An Abused Boy」가 탄생했다.

이 영역본 텍스트에 담긴 홍길동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길동과는 많이 다른데, 이는 번역자이자 개작자인 알렌의 의도가 개재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을 미지의 무지한 곳으로 생각하는 서양인들에게 알렌은 조선을 바르게 소개할 생각이었다.⁴⁵⁾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서사를 이어가면서도 바른 가치 지향을 꾀했다. 길동 탄생 장면의 폭력성과 울도국 정벌 등을 삭제·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알렌이 「홍길동전」을 거리낌 없이 개작 수준으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홍길동전」을 경전처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홍길동전」을 통해 민족적 민중적 혁명성을 읽어낼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한 명의 외국인의 시선에서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소개할 목적이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알렌은 홍길동을 특별히 고양시켜 평가하거나 굳이 격하시켜 바라보지 않았다.⁴⁶⁾ 자신이 바라보는 그대로 담담하게 풀어 번역할 따름이었다.

45) 알렌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이상현(2019b), 앞의 논문, pp.53~81. 참조.

이런 알렌의 홍길동 형상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말해 준다.

알렌이 보기에 홍길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식의 영웅이 아닌, 학대받는 아이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인물이었다. 길동은 당시 조선 귀족층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신분적 미천함을 지닌 아이로, 알렌은 이 아이를 출중한 능력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성공하는 입지전적 성공담으로 그려낸 것이다. 즉, 홍길동을 조선시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집안 내의 불우한 처지의 인물로 인식하여 길동의 개인적 성공담에 집중하여 서사를 전개해낸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작이 지니고 있던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갈등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개인적 문제로 변이되었다.

이는 원작이 지닌 사회 혁신적 문제의식의 퇴색이기도 하지만, 원작이 지닌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낸 것이기도 하다. 즉, 빈민 구제나 적서차별 거부 등의 혁명적 행위를 한 길동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 개인적 입신양명과 욕망 성취라는 원작 홍길동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빚어낸 서사를 합리적이고 개연적인 서사로 바꾼 것이다.

실제로, 알렌이 개작을 통해 그려낸 알렌본 홍길동의 모습이 당시 서구인의 시각에 포착된 「홍길동전」과 홍길동의 모습이란 점이 중요하다. 즉, 1880년대 외국인이 바라본 「홍길동전」의 객관적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 홍길동’이나 ‘의적 홍길동’이 아닌 개인적 울분에 찬 출중한 인물의 성공담이었다는 점으로, 원작에는 이율배반적이고 부도덕한 요소가 곳곳에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알렌의 시각과 당대 조선인의 시각이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명징

46) 이런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격하시킬 의도는 조선을 침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던 일본인들의 입장과 알렌은 완전히 달랐다. 일본인들의 우리 고전에 대한 관점과 상황에 대해서는 박상현(2009), 「제국 일본과 번역-호소이 하지메의 조선 고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1-2, 한국일어일문학회, pp.43~443; 김효순(2016), 「3.1운동과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감수 「홍길동전」 번역 연구」, <한림일본학> 28,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115~146; 최혜주(2020), 「일제강점기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조선 인식과 대일본주의론」, <승실사학> 45, 승실사학회, pp.221~242. 참조.

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서구인이 보고 풀이한 알렌본과 조선인들이 줄곧 유통했던 다른 이본들과의 차이는 극명하다. 이런 일정한 간극의 두 시선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는 지금 현재의 시선에서 점검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알렌은 「홍길동전」 서사에 담긴 폭력적 강간 상황이나 태평성대인 울도국을 부당하게 정복하는 주인공의 행동, 빼앗긴 여성을 공훈처럼 부여하는 문화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당대 조선인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다.⁴⁷⁾ 이렇게 서구인과 조선인이 바라본 「홍길동전」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고 그들이 생각한 ‘영웅’의 존재와 위상 역시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무엇이 더 타당한지 그른지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점검해 볼 문제이나, 정작 중요한 것은 최근까지 홍길동과 「홍길동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역시 당대 조선인의 시선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알렌이 1880년대 보았던 시각과 큰 거리가 있는 시각이다.

현재 우리 시각이 우리 「홍길동전」이기에 우리 시각이 옳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던, 그리고 「홍길동전」 텍스트가 널리 유통되고 있던 1880년대 서구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던 홍길동의 모습이 더 온당할 수 있다. 그것이 비록 알렌이라는 1인의 시각이기는 하지만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알렌이 번역한 「홍길동전」 영역본이 지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금 우리가 우리 고전 「홍길동전」을 바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1880년대 조선 정도에 머물고 있는지 아닌지 말이다.

47) 이는 「홍길동전」 모든 이본들의 편폭이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의 편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즉, 당대 유통된 모든 「홍길동전」은 홍 판서의 친압, 병조판서 되기 위한 활빈당 당수 홍길동의 행동, 울도국 정벌 등이 그대로 의미를 지니며 유통되었다. 이에 벗어나는 이본은 경판본 중 후대본이기에 경제적 목적에서 장수 축소를 위해 후반부를 줄인 몇 이본뿐이다. 그 이본들 역시 앞부분의 문제적 장면들은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조선 사람들의 시선은 알렌의 시선과 달리 고정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자료

<홍길동전> 김동육89장본

<홍길동전> 동양문고본

<홍길동전> 경판30장본

<홍길동전> 경판24장본

<홍길동전> 안성23장본

<홍길동전> 안성19장본

<Hong Kil Tong, or The Adventures of An Abused Boy> / 이진숙 · 김채현 · 이상현 역
주(2017), 『영웅소설 8』, 박문사, pp.118~164.

2. 논저

구자균(1963), 「서평- Horace N. Allen 저 「Korea: Fact and Fancy」, <아세아연구> 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pp.229~234.

기계형(2008), 「중앙아시아 무슬림 여성의 베일(Veil)에 관한 담론」, <e-Eurasia>9,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pp.39~41.

김민혁(2016), 「《홍길동전》의 이중 서사 구조와 통일 서사 구조」, <한국언어문화> 61, 한국언어문화학회, pp.121~145.

김일렬(1972), 「洪吉童傳의 不統一性和 統一性」, <어문학> 27, 한국어문화학회, pp.59~71.

김일렬(1988),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학회, pp.89~111.

김효순(2016), 「3.1운동과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감수 「홍길동전」 번역 연구」, <한림일본학> 28,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115~146.

박상현(2009), 「제국 일본과 번역-호소이 하지메의 조선 고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1-2, 한국일어일문학학회, pp.43~443.

엄기주(1991),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수선논집> 16,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pp.47~76.

염운옥(2010), 「영국의 무슬림 “베일(Veil)” 논쟁」, <대구사학> 101, 대구사학회, pp.265~292.

오은경(2006), 「베일로 재현된 무슬림들의 욕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6-2, 한국이슬람학회, pp.233~250.

오은경(2007), 「이슬람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국제지역연구> 11-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p.123~142.

- 유광수(2019), 「<홍길동전>: 홍길동의 자기 존재증명과 욕망의 서사」, <철학·사상·문화> 31,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pp.438~460.
- 유병환(2005), 「<홍길동전>의 형성배경」,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pp.37~60.
- 윤주필(1999), 「중세 지식인의 존재 방식과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pp.5~38.
- 이강옥(1990), 「<홍길동전>의 제문제와 해결」, 『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pp.156~175.
- 이상현(2011), 「물려진 <심청전> 정전화의 계보 -알렌(H. N. Allen), 호소이(細井肇), 게일(J. S. Gale) <심청전> 번역본의 연대기」,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pp.405~456.
- 이상현(2012), 「알렌 <백학선전>영역본 연구 -모리스 쿠랑의 고소설 비평을 통해 본 알렌 고소설영역본의 의미」, <비교한국학> 20-1, 국제비교한국학회, pp.289~335.
- 이상현(2019a), 「‘학대 아동(An Abused Boy)’과 ‘폭도’, 홍길동의 두 가지 형상과 <홍길동전> 번역의 계보」, <철학·사상·문화> 30,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pp.161~187.
- 이상현(2019b), 「『홍길동전』의 영역본 연구」, <한국연구> 1, 한국연구원, pp.53~81.
- 이윤석(1996), 「<홍길동전> 해석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9, 열상고전연구회, pp.193~213.
- 이진숙·이상현(2016), 「『계일유고』 소재 한국고전번역물(3)-게일의 미간행 육필 <홍길동전> 영역본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51, 열상고전연구회, pp.301~332.
- 이희재(2009), 『번역의 탄생』, 교양인.
- 전문수(1992), 「홍길동전의 불통일성과 통일성의 해명」, <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77~86.
- 조동일(1971),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pp.165~214.
- 조용호(1992), 「홍길동전의 주제 신고」, <서강어문> 8, pp.69~100.
- 주경철(2008), 『대항해시대』, 서울대출판부.
- 최혜주(2020), 「일제강점기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조선 인식과 대일본주의론」, <승실사학> 45, 승실사학회, pp.221~242.
- 한하은(2015), 「여성문제로 본 터키와 이집트의 정치 이슬람:베일 문제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34-1,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pp.81~116.
- 모리스 쿠랑, 이희재 역(1994), 『한국서지』, 일조각.
- 카렌 암스트롱, 장병욱 옮김(2003), 『이슬람』, 을유문화사.

A study onof H.N. Allen’s English translation of of H.N. Allen’s“*Hong Gildong-Jeon*”

Yu, Gwangsu

H. N. Allen (1858-1932) had read or heard about “*Hong Gildong-Jeon*” in the 1880s, and translated the text into English and published it in the“his *Korean Tales*.” The purpose of his translation was to sintroduce “*Hong Gildong-Jeon* to foreigners. In so” doing, he summarized, elided, added, elaborated, acculturated, adapted, and commented on suchthe work.

For instance, Allen has omitted the violence at Hong Gildong’s nativity and the unfair conquest of the Euldo nation only, presenting only good and sound values.

His translation of “*Hong Gildong-Jeon*” becamewas thus the success story of an abused boy, which espoused an inclusive worldview; h

His translation thus took a different view from the way that Koreans hadwho lived in the 1880s inviewed Hong Gildong. Because Allen was a foreigner, he had to make an objective observation about Hong Gildong and “*Hong Gildong-Jeon*,” unlike the Koreans of his days.

Allen’s different viewpoint on Hong Gildong and “*Hong Gildong-Jeon*” thus determine whetherchallenges us to consider we hether our perspective on themse works is correctI also make us and whether veour views on the work have solidified into dogma.

Keywords: *Hong Gildong-Jeon*, H. N. Allen, *Korean Tales*, translation,
Gyeonpan version, inclusive worldview, success story

이 논문은 2022년 2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2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2일
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3월 18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유광수 : ho1000@yonsei.ac.kr